

Mission Nicaragua

MARCH 202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2025 년 라마나웃 크리스천 스쿨 개학식)

“말씀 안에서 자라는 다음세대” 2025 년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20 년부터 시작된 학교 사역이 2025 년 현재, 유치원 한 개 반과 초등학교 6 개반 총 180 명과 스텝 17 명이 서로 협력과 기도 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는 다음세대**를 키우기 위해 출향하였습니다. 이 니카라과 라마나웃 크리스천 스쿨의 항공모함이 목적지까지 잘 순항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 년 학부모세미나** 지난 3 월 7 일, 니카라과에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유선선교사 인도로 '성경적인 자녀양육'을 주제로 한 학부모 세미나였는데, 무려 150 여 명의 학부모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열정과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금 느낄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니카라과는 유독 깨어진 가정이 많은 곳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깊은 곳엔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자리 잡고있고 그 아픔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해지며 아이들의 정서와 학교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



(2025 년 개학식 첫등교)

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한 분 한 분의 눈빛 속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부모님들,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흘러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의 이런 고백은 저희 부부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이 사역이



(2025 년 학부모 세미나)



(임마누엘장로교회 선교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단지 강의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부모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가정 안으로 흘러가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그 날까지 이 사역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임마누엘장로교회 선교팀** -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위치한 임마누엘장로교회가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니카라과에서 단기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선교는 특별히 니카라과의 공립학교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남미의 공립학교



(임마누엘장로교회 공립학교 영어교육사역)



(임마누엘장로교회 미술사역)

들은 대체로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부서진 창문, 부족한 책걸상, 무질서한 수업분위기, 그리고 교사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팀은 영어수업, 미술수업, 전도, 심방, 그리고 페인트 사역까지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지에 큰 은혜를 끼치고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미술수업은 현지 아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니카라과 교육에는 예체능 수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교팀이 준비한 미술수업은 아이들이 자신 안에 숨겨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부분은, 7살 현수와 8살 지환이라는 두 어린아이가 함께 선교 일정을 끝까지 잘 감당한 일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견하게 사역에 참여한 이 아이들을 보며, 처음 선교지로 파송될 당시 우리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던 두 자녀가 떠올라 많은 생각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도제목

1. 생명수교회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2. 라마나웃학교에 건축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이어지도록
3. 이곳 니카라과에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4. 선교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니카라과 선교사 김인선 신유선, 하민, 영민 드림